

# 조선후기 관원 행렬의 시각화 양상과 특징

제송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지식정보센터 전임연구원, 미술사학 전공  
jeshe@aks.ac.kr

I. 머리말

II. 관원의 위와 행렬 구성

III. 관원 행렬의 시각화 양상

IV. 맺음말

## I. 머리말

열과 대오를 이루어 나아가는 전근대 시기의 행렬은 행렬 주인공의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의장(儀仗)과 탈것(이동수단), 수행하는 인원의 구성과 숫자를 통해 위의(威儀)를 드러내었다. 국가의례 행렬의 경우 예전(禮典)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차례를 엄수한 행렬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왕의 거동 행렬이나 대국 명(明)의 사신 행렬은 사족 부녀까지 앞다투어 ‘관광(觀光)’에 열을 올렸을 정도로 중요한 볼거리였다.<sup>2)</sup> 감사나 수령의 행차 역시 위엄을 갖추어야 권위가 서고 민심을 진복(鎮服)시킬 수 있다고 여겨 이들의 행차가 초라하면 지적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가의례 행렬이건 관원 행렬이건 조선전기의 행렬 그림은 알려진 바가 없다.

관원의 행렬은 17세기 이후 외국에 파견되는 사신이나 지방관과 관련한 그림에서 일부 시각화되기 시작한다. 이들 시각자료를 통해 행렬의 구성과 당대 위의를 표현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관원으로서의 자부심의 발로 혹은 기록 용도로 시각화되기 시작한 행렬 이미지는 18세기 후반에는 단독 행렬도로 제작되기도 한다. 또한 ‘평생도’ 병풍은 관료로서 선망하는 평생의 관력(官歷)을 ‘장원급제-한림검수찬-송도(개성)유수-판서-정승’으로 대표하여 시각화함으로써 다양한 관료 행렬 이미지를 보편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18세기 후반에 본격화한 이들 관원 행렬 이미지는 19세기 들어 군사 관련 대기치류와 결합하여 18세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관원 행렬의 시각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방식과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까지 국가의례 행렬에 대한 연구는 국왕의 행차와 의례 행렬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루어진 데 반해<sup>3)</sup>, 관원 행렬에 대한 연구는 기록화, 풍속화, 실경산수화에 삽입된 행렬 이미지에 대해 피상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sup>4)</sup> 또한 민속학 분야에서

1) 국가의례 행렬은 『國朝五禮儀』 卷7 凶禮 ‘發引班次’; 『國朝五禮儀序例』 卷1 吉禮 ‘車駕出宮’ ‘車駕還宮’; 卷2 嘉禮 ‘鹵簿’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편성되었다.

2) 『성종실록』 19년 윤1월 28일 계사(癸巳).

3) 김지영, 『조선 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陵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제송희, 『조선시대 儀禮 班次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4) 최성희, 「19세기 평생도 연구」, 『미술사학』 16(2002); 김선정, 「조선시대 〈경기감영

〈안릉신영도(安陵新迎圖)〉와 수령의 부임과정을 연관 지어 분석하기도 하였다.<sup>5)</sup> 하지만 관원 행렬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행렬 이미지 전반을 총괄하는 회화사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관원 행렬의 성격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관원의 위의에 대한 법적 규정과 행렬에 위의를 표하는 장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전근대 시기의 위의는 법전에서 정한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선후기 회화에서 관원 행렬이 시각화되는 양상을 검토하고 그 의미 및 문화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정조 연간 관원 행렬 이미지의 정형이 성립되어 이후 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조선후기 행렬 이미지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II. 관원의 위의와 행렬 구성

### 1. 관원의 위의

관원의 위의는 복식, 의장, 탈것 등을 통해 구현되었다. 천자가 공이 있는 신하에게 작호(爵號)를 부여하고 그에 맞게 거복(車服)을 사여하여 계급의 존비(尊卑)를 구별하는 것은 고대 동양의 전통적인 질서였다.<sup>6)</sup> 조선의 국왕이 제후국 군주로서 명으로부터 면복을 하사받은 것이나 고려가 거란과 금으로부터 면복과 상로(象輅)를 하사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sup>7)</sup> 조선시대 관원의 위의와 관련한 사항은 『경국대전』 권3 예전(禮典) ‘의장(儀章)’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장(儀章)·관(冠)·복(服)에 대해 규정한 이 조항은 관과 복, 즉 복제(服制)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의장과 탈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놓았다.

도> 고찰, 『옛 그림 속의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05); 신남민, 「東萊府使接倭使圖 屏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李明熙, 「平安監司到任行事圖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박정애, 「19세기 連幅實景圖 屏風の 유행과 作畫 경향」, 『기록화·인물화』(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2016).

5) 이대화, 「朝鮮後期 守令赴任行列에 대한 一考-〈安陵新迎圖〉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8(2004).

6) 『書經』 舜典, “明試以功 車服以庸.”

7) 제송희, 「조선왕실의 가마[輦輿] 연구」, 『한국문화』 70(2015), 263쪽.

- ① 2품 이상의 관리는 초헌(輶軒)을 탄다.
- ② 당상관은 접갈상(胡床)과 말안장의 우비(鞍籠)를 든 하인이 앞에서 길을 인도한다. 관찰사는 절·월(節鉞)을 들게 한다. 정3품 당하관은 다만 말안장의 우비만 하인에게 들게 한다.

즉, 2품 이상관의 탈것인 초헌, 당상관의 호상(胡床)과 안룡(鞍籠), 당하관의 안룡, 관찰사의 절·월을 규정한 것이 전부이다. 초헌은 높직한 외마귀수레로, 덮개가 없어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거리 행차에는 불편하다. 원거리 행차나 2품관 이하의 관원은 모두 말을 탔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품계에 따라 안장과 덮개, 말치장 등 안구(鞍具)에 관한 규정을 세밀하게 해놓은 점이나 호상과 안룡이 말을 타는 데 필요한 물품이라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그 외 수행원의 숫자를 한정함으로써 위의를 규정하였다. 관원이 쥔 밖에서 거느릴 수 있는 노자(奴子)는 “1품 10명, 2품 9명, 3품 당상관 7명, 3·4품 5명, 5·6품 4명, 7품 이하 3명”이었다.<sup>8)</sup> 즉, 조선전기 관원의 행차는 대부분 말로 이루어졌고 호상과 안룡의 휴대 여부, 안장을 비롯한 말 치장의 정도, 수행원의 숫자에 따라 관원의 지위가 확인되었던 것이다.

한편 관찰사의 의장인 절·월은 부절(符節)과 부월(斧鉞)을 일컬으며 국왕이 장수에게 병권(兵權)의 상징으로 내어주던 물건이었다.<sup>9)</sup> 절과 월은 1795년 정조의 화성원행 행렬을 기록한 <화성원행반차도>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경기관찰사의 행렬에서 확인된다(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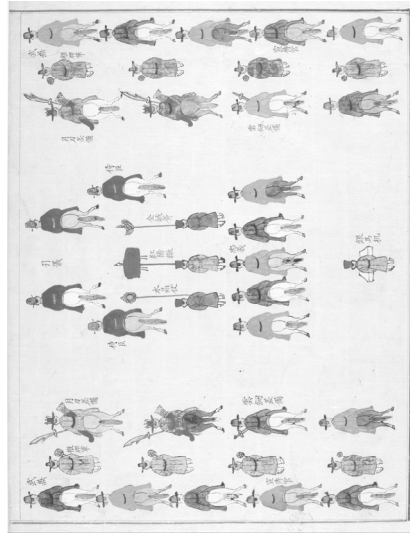


도1-경기관찰사의 절·월, 교서·유서, <화성원행반차도> 부분, 1795,  
지본채색, 전체 46.5×4483.0cm, 국립중앙박물관

8) 『經國大典』 卷5 刑典 根隨.

9) 『한어대사전』 10(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1017쪽.

절은 자루 끝에 지극(枝戟, 두 갈래로 난 창)이 있고 아래에 붉은색 상모(象毛)를 늘어뜨린 의장물이다. 월도 지극을 단 자루에 장타원형 수정(水晶) 구슬을 달고 아래에 붉은색 상모를 늘어뜨린 모양이다. 월은 수정장(水晶杖)으로 불린 왕의 의장과 비슷하데, 수정장은 은으로 짠 나무 자루 상단에 수정 구슬을 달고 금색을 입힌 철사를 구부려 불꽃 모양으로 사방에 둘러놓은 것이었다.<sup>10)</sup> 수정장은 국가의례를 거행할 때 금월부(金鉞斧)와 짝을 이루어 홍양산과 함께 진정



도2-국왕의 홍양산, 수정장·금월부, 어람용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1802 〈반차도〉 20면, 국립중앙박물관

(殿庭) 월대 위에 진열하고 국왕 행차 때에도 앞부분 중앙에 세우는 중요 의장물이었다(도2). 절과 월은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의 정사·부사 행렬 그림에서도 뚜렷이 시각화되어 있어 관찰사만이 아니고 국왕이 사신에게 내어주던 신표이자 상징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도3).

한편 영조 연간에 편찬된 『속대전』(1746)에서는 관원의 탈것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 ① 종1품 이상과 기로소(耆老所)의 당상관은 평교자(平轎子)를 승용한다.



도3-통신사 행렬의 깃발과 용기 및 절·월, 〈寬永朝鮮人來朝卷〉, 일본화, 1624, 지본담채, 전체 31.8×984.2cm, 국립중앙도서관

10) 『國朝五禮儀序例』 卷2 嘉禮 鹵簿圖說.

- ② 관찰사와 종2품 이상의 관원은 성외면 쌍마교(雙馬橋)를 승용하고 승지를 지낸 자는 비록 수령이라도 승용함을 허락한다. 의주와 동래는 변신(邊臣)이므로 또한 승용함을 허락한다.<sup>11)</sup>

종1품 이상과 기로소의 당상관이 타던 평교자는 2개의 긴 가마채 위에 가로로 짧은 가마채 4개를 가로지르고 가운데에 의자를 올린 3칸 가마였다. 짧은 가마채에 멜대를 걸어 4인이 앞뒤에서 어깨에 메도록 되어 있었고 의자에 호피나 표피를 깔고 검은색 칠을 하여 왕실에서 타던 붉은색 평교자와 등급을 구분하였다.<sup>12)</sup> 관찰사와 종2품 이상관이 성 밖에서 타도록 한 쌍마교(쌍교)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에 유입된 고급 승용수단으로 『경국대전』 규정에는 없던 새로운 탈것이었다.<sup>13)</sup> 보통 두 마리 말에 가마를 메우고 6명의 마부가 앞뒤에서 부축하고 나아갔는데 이것 역시 관원의 품계에 따라 승용이 제한된 조선후기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

『속대전』의 규정은 『경국대전』 이후 300여 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변화된 이동수단을 법전에 명문화한 것이다. 이로써 2품 이상관이 타던 초헌보다 고급 이동수단인 평교자가 등장하고, 성 밖에서 말 이외에 좀 더 편안한 이동수단으로 쌍마교가 보급된 사회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 2. 관원 행렬의 구성

이렇듯 관원 행렬에 대한 법전 규정은 소략한 편이었지만 관원의 권위는 곧 국가의 권위와 직결되었다. 특히 순력(巡歷) 중심으로 지방 행정이 이루어진 조선전기에는 관찰사의 행차에 적절한 위엄과 의식을 갖추어야 중앙정부의 권위도 서고 지방 민심도 진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sup>14)</sup> 당시 관찰사의 행차 모습은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쓴 『미암일기(眉巖日記草)』를 통해 살필 수 있다. 1571년 2월 4일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된 유희춘은 곁에 들어가 숙배하고 밀부(密符)와 국왕의

11) 『續大典』 卷3 禮典 儀章.

12) 제송희, 앞의 논문(2015), 286쪽.

13) 위의 논문, 271-273쪽.

14) 이수건, 『朝鮮時代 地方行政史』(민음사, 1989), 207쪽.

전교를 적은 교서와 유서를 받고 임지로 출발하였다.<sup>15)</sup> 감영의 관원들은 여산의 경계에서 대기(大旗)를 갖추어 유희춘을 마중하였고, 전주 오리정에서부터는 의장과 당개(幢蓋)를 갖추고 70명 정도의 관원이 수행하여 감영으로 나아갔다.<sup>16)</sup> 이후 유희춘은 전주에 머문 23일을 제외하고 190일 동안 49개 읍을 순력하며 감사업무를 보았다.<sup>17)</sup> 유희춘이 순력 때 갖춘 행렬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피상(皮箱)-사모갑(紗帽匣)-독(蠶)-기(旗)-인(印)·병부(兵符)-교서·유서-절·월-영봉(迎逢, 吹螺赤·나팔·태평소)-군관-전마(前馬)-보종(步從) 3쌍-나장(州·府 5쌍, 郡 4쌍, 縣 3쌍)-서자(書者) 1쌍-감사 마교(馬轎, 挾輔 6인)-서자 1쌍-도사(都事)-찰방(察訪)-심약(審藥)·검률(檢律)-중방(中房, 伴僮)-노자(奴子)-영리(營吏)-마두(馬頭)-도서자(都書者)<sup>18)</sup>

관찰사의 행렬 맨 앞에는 관대(冠帶)를 넣는 피상과 사모를 넣는 사모갑을 배치하여 공식 업무에 갈아입을 관복을 준비해놓는다. 이어지는 독과 기는 군대의 깃발류로 형(形)이라 한다.<sup>19)</sup> 인은 관찰사의 관인으로 도계(到界)하여 고귀(交龜) 의식을 거행하면서 전임 관찰사로부터 인계받은 것이고, 병부는 병력 동원에 관한 발병부(發兵符)로 유사시 국왕의 유서를 통해서만 집행되었다.<sup>20)</sup> 유희춘은 숙배 때 국왕의 유서와 함께 이 밀부를 받았고 관찰사의 업무를 잘 수행하라는 국왕의 전교를 적은 교서도 같이 받았다. 즉, 관찰사의 의장인 절·월 앞에 군대의 깃발, 관인과 병부, 국왕의 교서와 유서가 더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취라치(吹螺赤)·나팔·태평소는 각(角)·나팔·태평소로 이루어진 군영 악대이다.<sup>21)</sup> 악기류는 소리를 낸다 하여 명(名)이라 하며 앞의 깃발류와 합하여 형명(形名)이라 하고 함께 행렬의 지휘에 사용되었다. 이어

15) 유희춘, 『미암일기(眉巖日記草)』 3, 담양향토문화연구회(1994), 86-87쪽. 조선 후기 수령의 부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혁, 「조선후기 守令의 赴任儀禮-『頤齋亂藁』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2(2002) 참조.

16) 유희춘, 위의 책, 97-99쪽.

17) 여상진, 「18世紀 忠淸監司의 監營處 및 道內 邑治施設 利用」,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1(2008), 146쪽.

18) 이수진, 앞의 책, 199쪽.

19) 『國朝五禮儀序例』 卷4 軍禮 兵器圖說.

20) 『大典會通』 卷4 兵典 符信.

21) 이숙희, 『조선후기 군영악대』(태학사, 2007), 50-51쪽.

종자를 앞에 세운 관찰사의 마교가 나아가고 그 뒤에 도사, 찰방, 심약, 검률 순으로 감영의 관원들이 품계에 따라 서고 영리가 뒤따랐다.

유희춘의 예를 통해 조선전기 관찰사의 행렬은 크게 관복-군대 형명-관인·병부-교서·유서-절·월-군영 악대-전배 사령-관찰사의 마교-감영 관원-영리 순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전에서 규정한 관찰사의 의장인 절·월 외에 군대의 형명, 교서·유서, 관인·병부, 군영 악대, 쌍마교가 주요 요소로 편성된 것이다. 이 요소들은 이후 관찰사 행렬을 시각화할 때에도 주요하게 부각된다.

한편, 위 관원 행렬의 주요 요소들은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관련 행렬도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각화되었다.<sup>22)</sup>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관영조선인내조권(寬永朝鮮人來朝卷)〉(1624)에는 17세기 전반 의장을 앞세우고 군악을 올리면서 국서(國書)를 받들고 나아가는 조선 사신의 행렬이 묘사되어 있다. 행렬에는 독·형명기(용기) 외에도 행군 시 앞에서 도로의 행인을 금지하는 역할을 하는 청도기(淸道旗), 군중(軍中)의 범죄자를 순찰하여 잡아오는 역할을 하는 순시기(巡視旗), 명령을 내릴 때 쓰는 영기(令旗) 등의 깃발류와<sup>23)</sup> 고취대와 세악(細樂) 등 군악이 등장한다(도3 참조). 이 행렬도는 일본인 화가의 작품이지만 국왕이 내린 신표인 절·월, 독·용기·청도기·순시기와 고취대 등 형명, 삼사(三使)의 평교자 등 위의를 갖춘 조선 관원의 행렬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시각자료이다.

### III. 관원 행렬의 시각화 양상

#### 1. 초기 사례

관원 행렬이 시각화된 이른 예는 〈유영수양관연명지도(留營首陽館延命之圖)〉(1581)이다(도4). 이 그림은 윤두수(尹斗壽, 1533-1601)가 연안부사로 재직하던 1581년에 10년 전 황해도관찰사 부임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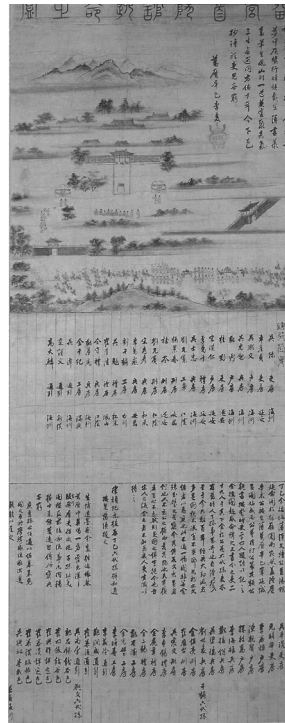
22) 李元植, 「通信使行列繪圖」, 『朝鮮通信使の研究』(京都: 思文閣出版, 1997), 635-640쪽.

23) 『續兵將圖說』 ‘形名’. “巡視旗 軍中作奸犯科者 巡察拿來 令旗 傳令軍中 或立陣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4)</sup> 그림은 동생 윤근수(尹根壽)가 ‘유영수양관연명지도(留營首陽館延命之圖)’라고 쓴 상단의 전서체 제목, 용수산 아래 해주성 안팎에서의 연명(延命) 의식을 재현한 그림, 의식에 참여한 영리 24명의 명단을 기록한 하단의 좌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리 명단 아래에는 윤두수의 후손들이 가장 유물을 보고 쓴 배관기가 2단 붙어 있고 또 다른 배관기 4단이 별폭의 액자로 장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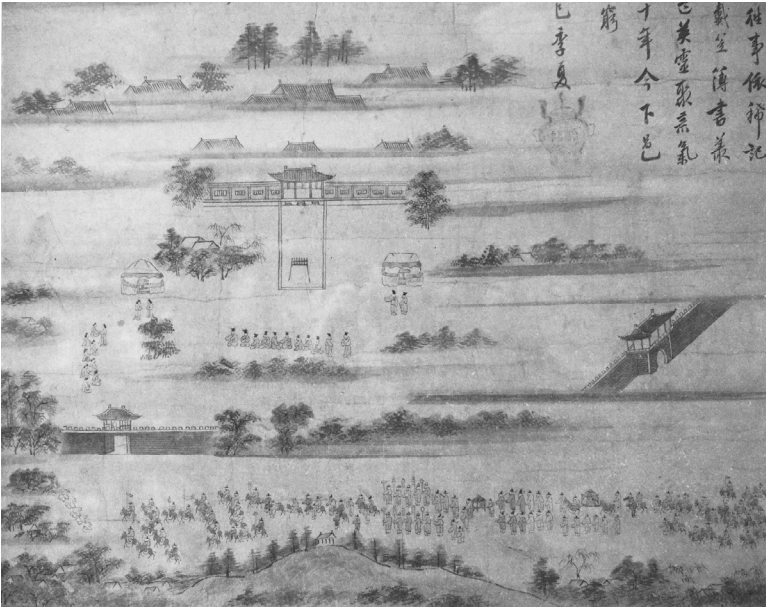
그림 오른쪽 상단에 윤두수가 쓴 7언 제시는 그의 시문집인 『오음유고(梧陰遺稿)』에 ‘제황해도영리계축(題黃海道營吏契軸)’이란 제목 아래 수록되어 있다.<sup>25)</sup> 이 제목은 윤두수가 황해도 영리들이 만든 계축에 써 준 제시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1571(辛未)년 관찰사 윤두수와 도사 윤승길 재임 시 배행한 영리(隆慶辛未 觀察使尹斗壽都事尹承吉時 陪行營吏)”라는 전서체 제목 아래 열거된 24인의 명단은 계축 제작에 참여한 영리들의 명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이 상단의 전서체 제목과 중단의 행사 장면, 하단의 좌목으로 구성된 당대 계회도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도 계축이란 성격에 무게를 실어준다.

연명 의식은 관찰사가 객사에 도착하여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 앞에 교서와 유서를 받들고 나아가 국왕의 조유(詔諭)를 받들었음을 고하는 의식이다.<sup>26)</sup> 그림에서는 읍성 북쪽에 위치한 용수산을 상단에, 남산을 하단에 배치한 후 중앙에는 구름에 싸인 수양관(객사) 건물을 포치하였다(도5). 객사의 삼문 밖 좌우에 설치된 임시 의막(依幕)과 삼문



도4-작자 미상, 〈留營首陽館延命之圖〉, 1581, 지본담채, 149.3×59.0cm, 개인 소장

24) 『경기문화재대관』(경기도, 1998), 232-233쪽; 박정애, 앞의 논문, 288-289쪽.  
 25) 윤두수, 『梧陰遺稿』 卷之一, ‘題黃海道營吏契軸’. “想看趨走黃深衷 往事依歸入夢中 雁驚行時頭戴笠 簿書叢裏筆生風 山川一道英靈聚 意氣三生會遇同 方伯十年今下邑 抄詩聽吏思無窮”  
 26) 여상진, 앞의 논문, 148쪽.



도5-〈유영수양관연명지도〉 부분

을 향해 앉은 홍의(紅衣) 차림의 유생들, 관기와 관원들은 의식을 준비 중임을 시사한다. 읍성 남문 밖으로는 성을 향해 오는 관찰사의 행렬이 길게 묘사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 및 회화 자료를 참고할 때, 행렬 앞의 깃발은 길을 인도하는 청도기, 이어 앞뒤로 늘어선 2개의 의장물이 독과 형명기이고 2열을 이룬 기마관원 뒤에 선 것이 절과 월로 보인다. 다음에 기마 혹은 도보의 관원들이 서고 2열로 도열한 홍의의 의장수들, 가마가 하나 있는데 무엇을 모셨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어 검은색 장(杖)을 든 군사 3쌍, 서자와 종자들이 서고 쌍마교를 탄 감사가 나아갔고, 감영의 관원과 영리들이 말을 타고 따랐다. 이 행렬에는 악대도 편성되었을 것이나 시각화되어 있지 않다. 윤두수가 탄 쌍마교는 16세기 후반 관찰사의 쌍마교 승용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윤두수는 해주성 밖 오리정에서부터 각종 기치와 의장, 군악대의 연주 아래 본격적으로 위의를 갖추고 나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계축의 중심인 연명 의식의 일부로서 간략화한 관찰사의 행렬이 시각화되어 있을 뿐이다. 도내 유력 이족(吏族) 중에서 차출된 감영의 영리들은 유영체제(留營體制) 아래 관찰사의 순력과 행정 집행에 없어서

는 안 되는 보좌관들이었다.<sup>27)</sup> 서울의 관료를 중심으로 동관(同官) 혹은 동방(同榜)의 결속을 기념하는 상징물로 제작되던 계회도를 지방 영리들이 제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sup>28)</sup> 계축 제작은 곧 영리들 간의 결속과 자부심을 드러낸 것으로, 윤두수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9)</sup> 그림에서 관찰사의 부임 행렬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듯 행렬을 간략하게 묘사하는 양상은 1624년 인조반정 후 고명(誥命)과 면복 주청 임무를 띠고 명에 파견된 사신들이 남긴 ‘갑자항해초천도’(甲子航海朝天圖)’에서도 보인다.<sup>30)</sup> 화첩에는 승선지인 선사포(旋槎浦)와 중국 땅 등주(登州)를 묘사한 장면에 관원 행렬이 등장한다. 홍의 군사 6인과 일산을 드리운 정사, 부사의 교자 및 서장관의 기마행렬 내지 중국에서 대여한 옥교(屋轎) 행렬을 간략하게 묘사해놓았다(도6).



도6-〈旋槎浦〉부분, 『航海朝天圖』(화첩) 1면, 지본담채, 각 41.0×68.0cm, 국립중앙박물관

27) 이수건, 앞의 책, 225-2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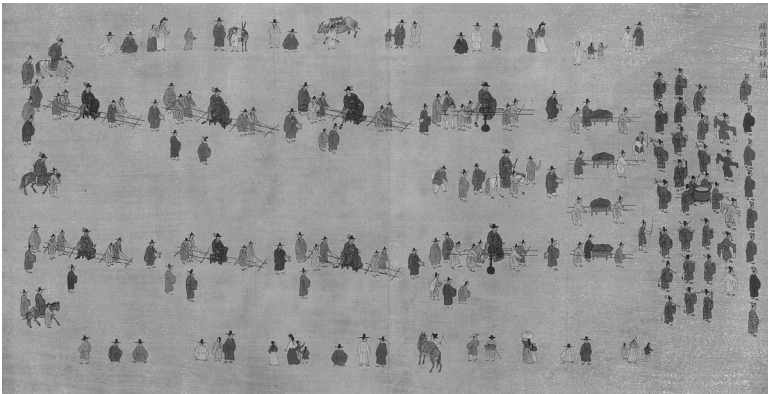
28) 윤진영, 「조선시대 지방관의 기록화」, 『영남학』 16(2009), 85-86쪽.

29) 윤두수는 1581년 구휼을 잘한 관원으로 추천되어 조정으로부터 포상받은 바 있다. 『선조실록』 14년 3월 28일(辛卯).

30) 1624년 朝天 使行 관련 회화에 대해서는 정은주, 「뱃길로 간 중국, 갑자항해초천도」, 『문헌과해석』 26(2004); 최은정, 「甲子(1624年)航海朝天圖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참조.

200-300명 규모의 행렬을 이렇듯 간략하게 묘사한 것은 행렬에 대한 시각화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은 관행과, 후금군의 침공으로 불안정하던 명의 정치정세로 인해 마필과 탈것을 제대로 조달받지 못해 위의를 갖출 수 없었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sup>31)</sup> 이는 비슷한 시기 문화 상국(上國) 사신으로 파견된 통신사 관련 행렬도가 에도(江戸)시대 일본에서 크게 각광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sup>32)</sup>

이후 관원 행렬은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사가(私家) 기록화로 제작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2)와 기로소에서 제작하여 관원들에게 하사한 『기사계첩(耆社契帖)』(1720),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1744-1745)에 일부 등장하지만 이들 행렬 역시 간략하게 묘사하거나 두세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초헌과 평교자를 각기 탄 기로소 당상관의 행렬이 묘사되어 있을 뿐이다(도7).<sup>33)</sup> 그러므로 영조 연간까지 위의를 부각하여 관원 행렬을 시각화하려는 풍조나 문화는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도7-〈賜樂膳歸社圖〉, 장득만 등, 『耆社慶會帖』, 1744-1745, 견본채색, 43.5×67.8cm, 국립중앙박물관

31) 洪翼漢 지음, 정지상 옮김, 『朝天航海錄』 卷1, 갑자년 9월 10일(신유)(고전번역원 한국 고전종합DB).

32) 통신사의 행렬이 묘사된 회화작품은 50여 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이에 대해서는 田代和生, 「朝鮮通信使行列繪卷の研究」, 『朝鮮學報』 137(1990); 홍선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1711년 조선통신사행렬도」, (사)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국사편찬위원회, 『朝鮮時代 通信使 行列』(2005); 차미애, 「江戸時代 通信使登城行列圖」, 『미술사연구』 20(2006) 참조.

33) 윤민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일지사, 2000), 168-249쪽 참조.

## 2. 정조 연간의 평생도와 정형 성립

관원 행렬의 시각화 양상은 18세기 후반 정조 연간에 접어들면서 크게 변화였다. 이 점은 평생도 병풍의 유행을 통해 알 수 있다. 평생도란 과거에 급제하여 정9품 예문관 검열(한림)로 시작하여 정6품 홍문관 수찬, 종2품 송도(개성)유수, 정2품 병조판서, 정1품 좌의정에 이르는 관원의 승진과정과 돌·혼인·회혼으로 대표되는 평생의례를 결합하여 8-10폭의 병풍에 한 인간의 일대기를 형상화한 그림이다. 김홍도(金弘道)가 창안한 것으로 일컬어지는 평생도 병풍에는 급제-한림검수찬-개성유수-병조판서-좌의정 등 다양한 관원의 행차 장면이 시각화되어 있다.<sup>34)</sup>

과거 급제 후 삼일유가 행차는 합격증서(白牌와 紅牌)를 앞세우고 세악수의 연주 속에 어사화를 꽃고 말을 탄 급제자와 구경하는 관관 남녀를 통해 급제에 대한 당대인의 선망을 드러내었다. 당하관인 예문관과 홍문관 관원의 행차는 안릉과 관청의 패(牌)를 앞세우고 사령 두셋과 청지기를 거느리고 관아로 나아가는 행렬이 묘사되었다(도8). 정2품 병조판서의 행차에는 3쌍의 순령수를 앞세우고 좌우에 별배와 사령, 서리를 대동하고 호피방석이 깔린 높직한 초헌에 탄 행렬이 묘사되어 있다. 정1품 좌의정의 행렬에는 인배와 호상, 순령수와 사령을 앞세우고 파초선(芭蕉扇)을 드리우고 평교자를 탄 모습이 등장한다. 당상관에게 허용된 호상, 종1품 이상관이 타던 평교자, 파초선, 10명 내외의 수행원으로 구성된 행차 장면이 확인된다. 이들 관원의 행렬은 대체로 법전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행차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외관이던 종2품 개성유수겸 관리사의 행차에서는 위의를 달리 갖



도8-한림검수찬 행렬, 작자 미상, <평생도>(8첩 병풍) 중 4폭, 건본채색, 각 폭 53.9×35.2cm, 국립중앙박물관

34)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일지사, 1999), 402-411쪽.



도9-개성유수 행렬, 작자 미상,  
〈평생도〉(8첩 병풍) 중 5폭

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개성유수의 행렬은 비장 2인과 교서와 유서, 월과 절, 사명기와 신기(身旗, 神旗 내지 認旗로 추정), 대취타, 군뢰와 나줄, 곤장수와 주장수, 영기를 앞세우고 집사와 통인, 사령 및 중군이 수행하는 쌍마교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도9). 교서와 유서는 관원의 행정 및 군사 관계 업무에 대해 각각 왕이 내린 당부의 글이었는데 이것들을 선명한 붉은색 통에 담아 시각화한 것이다. 또한 왕이 사신에게 주던 신표인 절과 월이 개성유수의 행렬에도 등장한다.<sup>36)</sup> 깃발류는 사명기와 신기 1면만 등장할 뿐 대기차는 없고 고취대도 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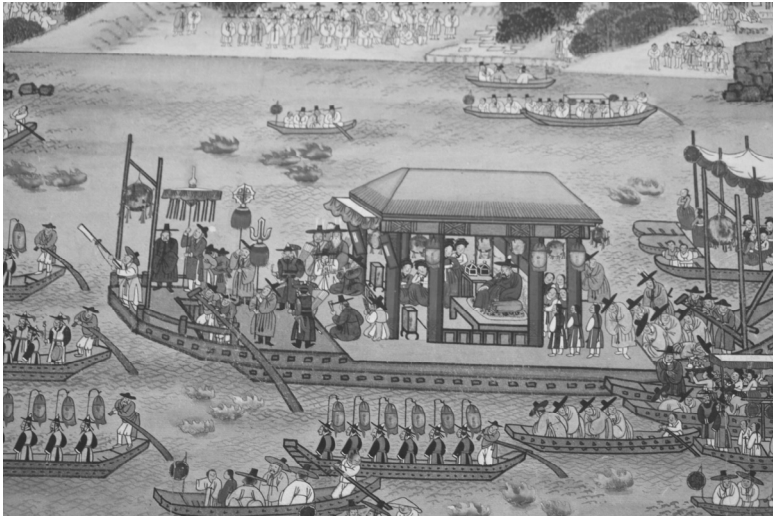
화하여 묘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성유수의 부임 행렬에 묘사된 교서와 유서, 절과 월은 앞서 본 〈화성원행반차도〉의 경기관찰사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도1 참조). 교서와 유서는 절·월과 짝하여 정조 연간부터 회화자료에서 시각화되며, 절·월 앞에 배치하여 왕권 자체를 더 강조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서와 유서는 정조 연간에 강화된 왕권의 존재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각물로 볼 수 있다. 이후 평양감사가 대동강에서 행사하는 장면을 담은 〈평양감사향연도〉에서도 뚜렷하게 시각화되어, 이들이 관찰사의 중요 의전 요소로 부각된 양상을 살필 수 있다(도10).

평생도 병풍은 당대 사람들이 이상으로 여기던 인생행로를 압축하여 시각화한 길상적 성격의 풍속화이다.<sup>37)</sup> 즉, 이 병풍에 등장하는 관원 행렬은 특정 인물의 이력을 기록한 그림이 아니고 당대에 일반화된 전형적인 관원 행차 모습인 것이다. 특히 교서·유서와 절·월이 근간을

35) 이하 명칭은 〈모당홍이상평생도〉와 동일한 내용이 묘사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평생도〉 병풍(『단원 김홍도』, 중앙일보사, 1985, 도15-도24)의 부표 표기를 참조하였다.

36) 留守府는 조선 후기 王都의 陪都로서 군사적 기능이 강화되었고 2품관인 관찰사와 같은 품계의 관원이 유수로 임명되었다. 이준희,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연구』(일지사, 1990), 277쪽.

37) 최성희, 앞의 논문, 103쪽.



도10-절·월과 교서·유서, 전 김홍도, 〈평양감사향연도〉 중 〈月夜船遊〉 부분, 지 본채색, 전체 71.2×196.6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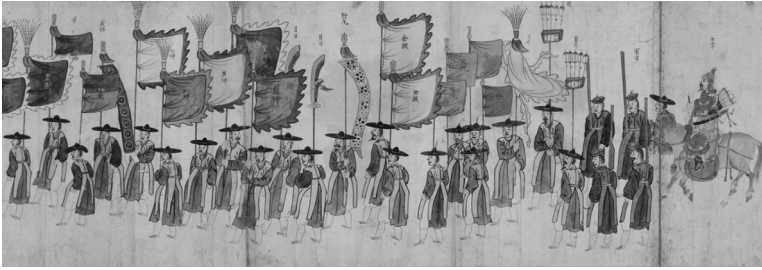
이론 외관 행렬 도상은 이 시기 강화된 왕권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평생도 병풍의 유행은 곧 위의를 갖춘 관원 행렬도에 대한 당대인의 선호를 짐작케 한다.

한편, 특정 관원의 행렬을 기록한 그림은 제발(題跋)을 갖춘 독립 행렬도에서 확인된다. 〈안릉신영도〉는 1785년 평안도 안주목사 겸 안주 진관(安州鎭管) 병마첨절제사 신사운(申思運, 1721-1801)의 부임 행렬을 묘사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sup>38)</sup> 요산헌(樂山軒)이 1788년에 쓴 발문에 따르면, 1785년 봄에 아버지가 안릉(안주)의 수령이 되었을 때 따라가서 그 성대한 위의를 목도하고 1786년 가을에 화공 사능(士能) 김홍도에게 그 반차를 모사하게 했다고 한다.<sup>39)</sup>

이 그림은 자연스럽게 차례를 이론 긴 행렬을 배경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해놓았다. 선두에는 40면의 대기치와 월도(月刀), 순시기, 영기, 지휘 기인 인기(認旗), 관이수(貫耳手)와 영전수(令箭手)를 앞세우고 갑주를 갖추 입은 중군이 고취대와 병방과 집사를 대동하고 행렬을 선도하고 있다. 이어지는 행렬은 급창과 인로, 일산, 영리와 통인, 지로나장(指路羅將), 세악수, 기생, 요여, 배행, 말 탄 여종들에 이어 나장, 군뢰, 영기수,

38) 이대화, 앞의 논문, 197-199쪽.

39) 발문은 『조선시대 풍속화』(국립중앙박물관, 2002), 286쪽의 임재완의 번역 참조.



도11- 대기치, 전 김홍도 <安陵新迎圖> 부분, 1786, 지본채색, 전체 25,3×633,0cm, 국립중앙박물관

동기, 기생, 쌍교, 배행이 서고 다시 영기, 군뢰, 순령수, 통인, 좌거(坐車), 책실(冊室), 책객(冊客), 중방, 기생, 향청의 좌수와 예감(禮監) 등이 나아가는 순서로 되어 있다.

이 행렬은 종3품관 목사의 행차였던 만큼 의장인 절·월과 국왕의 권한 위임을 상징하는 교서·유서가 없다. 행렬의 위의를 우선 관내 군사업무를 담당하던 중군이 대기치와 악대(고취대·세악수)를 동원하여 행렬을 선도함으로써 무위를 과시한 데서 확인된다(도11).

또한 요여, 쌍교, 좌거 순으로 배치된 이동수단들을 통해 위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안주목사는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외관직이었기 때문에 요여에 조상의 신주를 모신 것으로 보이며, 도사령(都使令)과 도색(都色)이 배행한 쌍교에는 목사가 타고 좌거에는 부모나 부인이 탄 것으로 추정된다. 신사운은 당시 당상관이었고 안주는 평안도의 인후(咽喉)와 같은 국경의 요지였기 때문에 쌍교를 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두 바퀴를 단 수레에 말 한 필이 끌고 사방에 푸른색 익장(翼帳)을 가설한 화려한 장식의 좌거는 수레 문화가 없던 조선에서는 이채로운 이동수단이었다(도12). 1798년 사행에 서장관으로 참여한 서유문(徐有聞)이 『무오연행록』에서 “(좌거의) 위는 가마같이 꾸몄으며, 길이가 다소



도12- 좌거, 〈안릉신영도〉부분

길고 뒤에 두 바퀴를 달았으며, 앞으로 긴 채를 만들어 말을 메웠으니<sup>40)</sup>라고 한 설명과 부합한다. 좌거의 승용은 영조 연간까지 국가의 기강과 관련한 사안으로 문제시할 정도로 엄금하고 있었다.<sup>41)</sup> 이후에도 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바가 없으며, 연행사가 중국에서 임대하여 타거나 조선 경내에서는 서북 연행로에서 칙사 접대를 위해 일부 허용된 상황이었다.<sup>42)</sup> 그러므로 18세기 후반 상황에서 좌거는 아주 고급스런 최선식 이동수단이었으며 그림에서는 그 승용 사실을 부각하고자 하였음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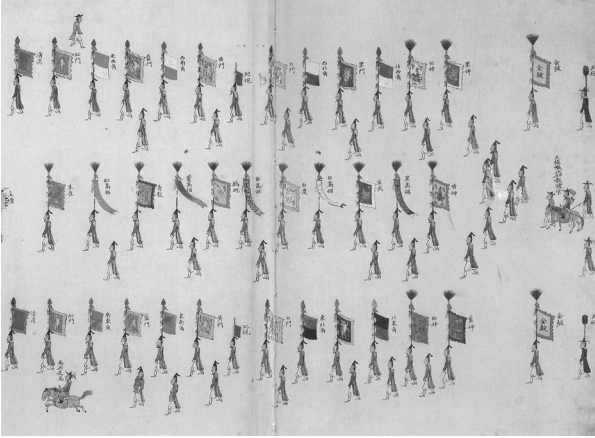
변화 있는 행렬 구성이나 인물의 늘씬한 신체, 얼굴 묘사 등에서 일부 김홍도의 화풍이 엿보이기도 한다.<sup>43)</sup> 하지만 정면 및 측면 자세를 취한 상체와 어울리지 않는 일률적인 다리 및 신발 묘사, 병사들의 호의(號衣)의 꺾어진 의습선에 보이는 딱딱한 필치와 측면 얼굴의 어색한 윤곽 처리 등에서는 김홍도의 화격보다 떨어지며, 음영이 강조된 말머리와 말안장 위의 깔개 장식 등 후대의 화풍이 엿보이기도 하여 김홍도의 원작을 후대에 모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40) 서유문(徐有聞),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 1, 무오년(1798) 11월 19일(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41) 영조는 사신들이 중국 경내에서 좌거를 탔다고 하여 국가의 기강을 문제 삼아 齎咨官을 연경으로 특파하여 수레를 불태우고 삼사신이 압록강을 건넌 뒤에는 유배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영조실록』 39년 12월 11일(癸巳)).

42) 조선 경내에서의 좌거 승용은 1835년 순조 국상 시 조문 온 청의 칙사 환송과정에서 鄭元容이 탄 좌거를 부칙사의 쌍교와 바뀌 탄 기록이 보인다. 정원용 지음, 허경진·구지현·전송열 옮김, 『(국역)경산일록』 2(보고사, 2009), 238쪽.

43) 오주석, 『단원 김홍도』(열화당, 1998), 143쪽, 290쪽.



도13-대기치, 〈화성원행반차도〉 부분

하지만 〈안룡신영도〉는 18세기 후반 사가 기록화에서 대기치류와 군영 악대가 구체적으로 시각화된 예로서 의의가 크다. 대기치는 청도기 1쌍, 홍문기(紅門旗) 1쌍, 주작기, 남서각기(南西角旗)·남동각기(南東角旗), 홍초기(紅招旗), 남문기(藍門旗) 1쌍, 청룡기, 서남각기·동남각기, 남초기(藍招旗), 황문기(黃門旗) 1쌍, 등사기(騰蛇旗), 순시기 1쌍, 황초기(黃招旗), 백문기(白門旗) 1쌍, 백호기, 서북각기·동북각기, 백초기(白招旗), 흑문기(黑門旗) 1쌍, 현무기, 북서각기·북동각기, 흑초기(黑招旗), 백·홍·황·남·흑 신기(神旗) 각 1, 표미기(豹尾旗), 금고기(金鼓旗) 1쌍 등 4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군 뒤에 위치한 고취대는 타악기인 북(鼓)과 자바라(鑼), 관악기인 발(嗵)·나팔·태평소로 이루어져 있고, 요여 앞에 위치한 세악은 피리·대금·해금·장구·북 등 삼현육각으로 편성되어 있다.<sup>44)</sup>

그림의 대기치들은 군사조련용 병서인 『병학지남』 〈대장청도도(大將淸道圖)〉의 명칭과 순서를 따르고 있다.<sup>45)</sup> 대기치 배치는 같은 시기 정조의 거동 행렬에서 정식화되었다.<sup>46)</sup> 그에 따라 『원행을묘정리의례』 〈반차도〉나 〈화성원행반차도〉는 물론이고 〈화성원행도〉 병풍에서도

44) 이숙희, 앞의 책, 120쪽, 258쪽.

45) 『역주 병학지남』(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162쪽; 이대화, 앞의 논문, 222쪽의 〈부록 2〉 참조.

46) 『春官通考』 卷67의 〈今儀 城外動駕班次圖〉〈今儀 山陵動駕班次之圖〉 참조; 김지영, 앞의 논문, 57쪽.

각종 행사 장면과 〈환어행렬도〉에 정연한 대오를 이룬 대기치가 주요하게 시각화되었다(도13).<sup>47)</sup>

이들 대기치류는 정조의 군권 강화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정약용은 무과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외워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대장청도도〉를 숙지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sup>48)</sup> 그런 만큼 〈안릉신영도〉의 대기치는 정조의 군권 강화 정책이 반영된 시각자료로서 의의가 있으며, 19세기 관원 행렬에서도 특징적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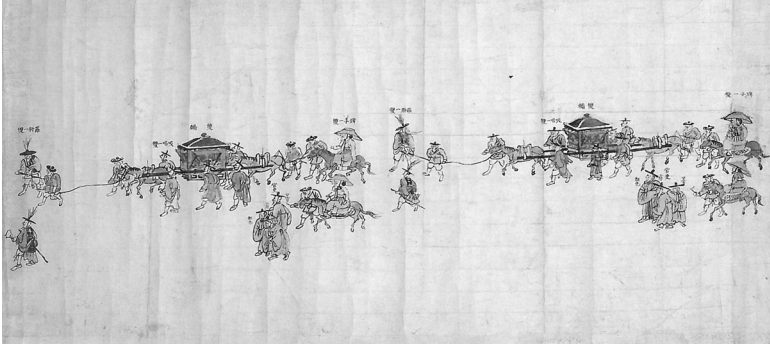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부임행렬도(赴任行列圖)〉 역시 1808년 황해도 신계현령 박제일(朴齊一)이 임지로 가는 행렬을 독립 두루마리로 제작한 것이다. 일산 외에는 의장이 없고 탈것과 수행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탈것으로는 두 마리 말에 매운 쌍교 2좌와 좌거가 등장한다. 쌍교에는 나장 1쌍과 급창 1쌍이 길을 여는 가운데 견마배가 고삐를 잡고 4인이 가마를 부축하고 있으며 관리(官吏)와 말 탄 여종이 각기 따르고 있다. 맨 뒤에 위치한 좌거 앞에 일산이 배치되어 있어 주인공 현령이 탔음을 암시하며 아이들이 탄 교자(負擔機)가 옆에 서고 중방 이하 육방 아전들이 수행하고 있다. 쌍교 2좌와 좌거는 종5품관인 현령의 행렬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이동수단이다. 즉, 이 그림은 고급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행렬을 이룬 모습을 간략한 필치로 묘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림 뒤에 붙은 2개의 발문은 그림의 제작 동기와 행렬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sup>49)</sup> 1808년 윤5월에 순조가 영조의 3녀 화평옹주(和平翁主, 1727-1748)의 증손자인 박제일에게 신계현령을 제수한 데 이어 6월 24일 화평옹주 사망 60주기를 기념하여 특별히 제수(祭需)를 하사하였고, 8월 7일 신주를 판여(板輿)에 받들고 임지로 내려갈 때는 액예궁(掖隸宮, 掖庭署) 소속 하인들에게 신주를 받들고 가라는 명을 내렸다. 박제일은 자필 발문에서 국왕의 이 특별한 은혜를 기념하는 ‘충축(忠軸)’을 그려 국왕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대대로 전하고자 하였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그러므로 현령의 행렬에 어울리지 않는 쌍교와 좌거는 순조의 특별한 배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7) 제송희, 앞의 논문(2013), 119-138쪽.

48) 정약용, 『경세유표(經世遺表)』 15, 하관수제(夏官修制) 무과(武科).

49) 발문 번역은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삼성문화재단, 1999), 232쪽의 임제완의 해제 참조.



도14-쌍교, 〈赴任行列圖〉부분, 1812, 지본채색, 전체 38.0×173.0cm, 삼성미술관 리움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삼성문화재단, 1999,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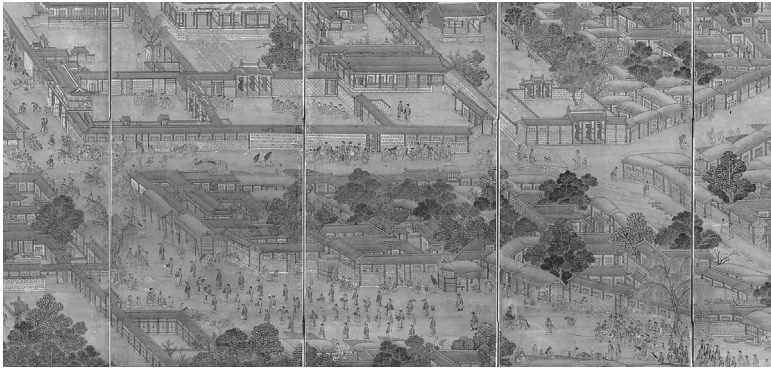
두 쌍교 아래쪽에 묘사된 세 명의 관리는 넓은 소매에 긴 옷자락으로 보아 순조가 특별히 배위하도록 보낸 액정서 관원으로 보이며 각 쌍교에는 화평옹주와 남편 박명원(朴明源)의 신주가 모셔져 있었음을 암시한다(도14).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조 연간에 관원에 대한 당대인의 선망을 반영하여 유행한 평생도 병풍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교서·유서와 절·월을 기본으로 위의를 갖춘 관원 행렬도의 정형이 성립하였다. 또한 자신의 이력을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려는 생각에서 대기치, 쌍교와 좌거 등 최신식 이동수단을 시각화한 독립 행렬도들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 3. 19세기 연폭 실경도와 확산

19세기에는 대규모의 관원 행렬이 연폭 실경도 병풍의 주요 제재로 등장한다.<sup>50)</sup> 감영이나 유수영 등 행정 및 군사 요충지를 공간 배경으로 한 이들 실경도에는 관원의 행차와 군사훈련 장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함께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 관원의 행렬은 교서·유서와 절·월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무위를 상징하는 대기치가 주요하게 묘사된다. 대기치의 시각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50) '연폭 실경도'는 19세기 산수화·풍속화·행사기록화·지도 등의 요소를 다폭 병풍에 묘사한 시각자료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박정애가 처음 사용하였다. 박정애, 앞의 논문 참조.



도15-경기감사 행렬, 〈京畿監營圖〉(12첩 병풍) 부분, 지본채색, 전체 135.8×442.2cm, 삼성미술관 리움

첫째, 대기치가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묘사된 유형이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성도(華城圖)〉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감영도〉는 돈의문 밖 경기감영과 주변 경관을 12폭 연폭에 묘사한 실경도 병풍이다. 돈의문과 도성성곽, 북악과 인왕 및 안산의 연봉과 주변 자연경관을 파노라마식으로 묘사하고 경기감영과 경기빈관(京畿賓館), 중군영(中軍營), 고마청(雇馬廳) 등 주요 관아와 주변의 민가, 상점 등 반송반 일대 한양 서부 지역의 변화한 시가지 모습을 담아내었는데, 회화식 지도와 성시풍속도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sup>51)</sup> 산수와 건물 및 인물의 묘사에 궁중화풍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구도와 필치가 매우 우수하다.

병풍에는 3폭 하단에서 시작하여 7폭 중간 경기감영 정문까지 의주대로를 따라 나아가고 있는 관원의 행렬이 묘사되어 있다(도15). ‘기영포정사(畿營布政司)’라고 쓴 감영 정문 앞에 군사 2인이 길을 가로막고 앉아 있고 좌우에 하례들이 엮드린 가운데 일산을 든 군사가 정문 쪽으로 방향을 막 튼 상태이다. 이어 나장 2인이 주변을 단속하는 가운데 절·월, 유서·교서가 배치되고 융복에 활과 전통(箭筒)을 멘 군관 둘이 말을 타고 가고 있다. 다음에는 주장(朱杖)을 든 군사 10인과 영기수 10인이 좌우로 나누어 서고 그 안쪽으로 20인의 고취대가 음악을 연주하며 행진하고 있다. 실제로는 전국 도로망 가운데 제1의 의주대로 넓은 길을 2열씩 대오를 지어 위풍당당하게 나아갔을 것이나 화면관계상

51) 〈京畿監營圖〉의 자세한 내용은 김선정, 앞의 논문 참조.

인물들을 상하로 포치하였다. 고취대 뒤에는 사명기로 보이는 긴 깃발과 신전수·관이수가 서고 사령 2인과 인신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말 1필에 이어 긴 고삐를 잡힌 말에 관찰사가 타고 있다. 관찰사는 당상 3품 이상관의 복색인 홍담포(淡紅袍)에 사모관대를 한 모습이며 주위에는 40인가량의 수행원과 군사가 따르고 있다. 많은 백성이 행렬 주변에 밀집해 있고 도로변 민가에서도 여성들이 문을 열어 올리고 구경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관찰사는 병마수군절도사와 순찰사로서 종2품관이었으나 수도권 방위체계의 근간인 사도(四都, 수원부·광주부·개성부·강화부)의 유수를 겸하였으므로 정2품관이 임명되는 예가 많았다.<sup>52)</sup> 하지만 이 행렬에서 관찰사는 그러한 지위에 걸맞지 않게 말을 타고 있으며 사명기로 보이는 긴 깃발 외에는 대기치류를 특별히 시각화하지 않았다. 관찰사는 성 밖에서 쌍마교를 댔는데, 성저10리 한성부 서부리는 감영 입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2품관 이상이 타던 초헌은 탈 수 있었을 것이다. 평생도 병풍에서도 보았듯이 말은 당하관의 이동수단이었고 말을 타는 것은 위의를 손상한다는 사회적 인식까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기감사 행렬의 사실적인 재현과는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 점은 <경기감영도>가 19세기 전반 태평성세를 찬양하기 위해 제작된 성시풍속도라는 점과 연관 지어 보아야만 해명된다. 즉, 성시풍속도를 제작하면서 정조 연간 풍속화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관원 행렬과 사명기 정도만 묘사하던 방식을 차용하여 도상들을 구성한 결과 사실적인 재현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행렬이 탄생한 것이다.

한편 <화성도>에서는 간략하지만 대기치류가 시각화되어 있다. 그림은 버들잎 모양 화성 시가지와 행궁, 성곽의 모습을 『화성성역의궤』의 <화성전도>대로 중심(4·8폭)에 배치하고 앞 3폭(1·3폭)과 뒤 4폭(9·12폭)에 드넓은 자연공간을 끌어들여 12폭의 대형 화면으로 구성해놓았다. 앞 3폭은 화성부로부터 15리 북쪽에 위치한 지지현(遲遲峴)에서부터 장안문 밖 3리 지점의 영화정(迎華亭)과 정조가 특교로 옮겨 설치한 영화역(迎華驛) 및 주변의 들판을 배치하고, 뒷부분은 팔달문에서 삼남으로 나아가는 대로 주변의 넓은 공간을 조망하여 수원부의 북부와 남부를

52) 이준희, 「8도체제와 경기관찰사」, 『경기도 역사와 문화』(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163쪽.



도16-수원유수 행렬, 〈화성도〉(12첩 병풍) 부분, 지본채색, 전체 165.3×443.9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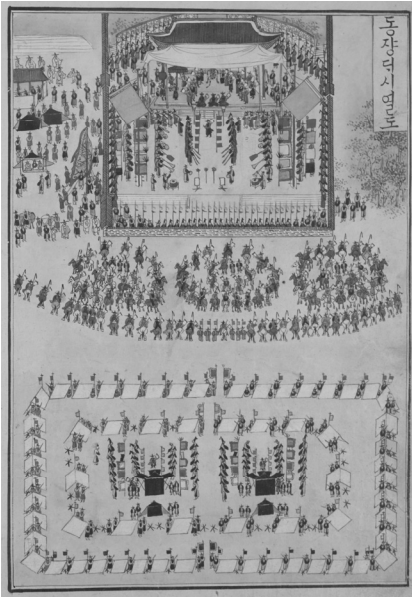
공간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지지현 고개에 1807년에 세운 ‘지지대(遲遲臺) 비각’이 묘사되어 있어 1807년 이후 수원부의 모습을 담은 것을 알 수 있다.<sup>53)</sup>

지지현을 넘어 장안문을 지나 남북 대로를 따라 행궁 쪽으로 굽이굽이 길게 이어진 행렬은 십자거리에서 화성 행궁을 향해 막 오른쪽으로 꺾은 행렬의 선두에 절과 월, 유서와 교서를 든 군사들이 있어 수원유수 겸 관찰사의 행렬임을 알려준다(도16). 이어 순령수, 영기 등과 대기치 30면 정도가 배치되고 장안문 밖으로 고취대와 일산, 각종 표하군을 앞세운 쌍마교와 군사들이 뒤따르고 있다. 행렬 주인공이 탄 쌍마교의 색깔이 왕실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아닌 데다 쌍마교 앞에 용기나 홍양산 같은 의장기가 없고 일산만 배치되어 있어 왕의 행렬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정2품 수원유수의 행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화성도〉에는 동장대와 장안문 밖 두 곳에서 군사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동장대는 화성 축조 시 성안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대장이 군사들을 조련하는 연무대로 조영된 곳이었다.<sup>54)</sup> 1795년 8월 25일 동장대가 완공되자 정조는 다음 해 1월의 행행 때 수가한 장용위와 금군 및

53) 朴綺秀, 『華城誌』 권2 蹕路; 화성시,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읍지』(2006), 147쪽.

54)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국역증보판』 상(2005), 70-72쪽.



도17-〈동장대시열도〉, 『덩니의궤 권지삼십구 화성성역도본』 42v, 파리 국립도서관 (BNF)

장용영 내외영 군사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직접 시열(試閱)을 하였다.<sup>55)</sup> 파리 국립도서관 (BNF) 소장 『덩니의궤 권지삼십구 화성성역도본』의 〈동장대시열도〉는 1796년 1월 22일 정조의 동장대 시열을 묘사한 그림이다(도17). 건물 안쪽 정조의 어좌를 중심으로 좌우에 노란색 대열무기를 옆으로 내걸고 대기치와 내취가 도열하고 창검군이 담장을 따라 에워싼 가운데 담장 바깥 왼쪽에 용대기가 서고 앞쪽으로 마병과 보병의 사열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일성록』의 당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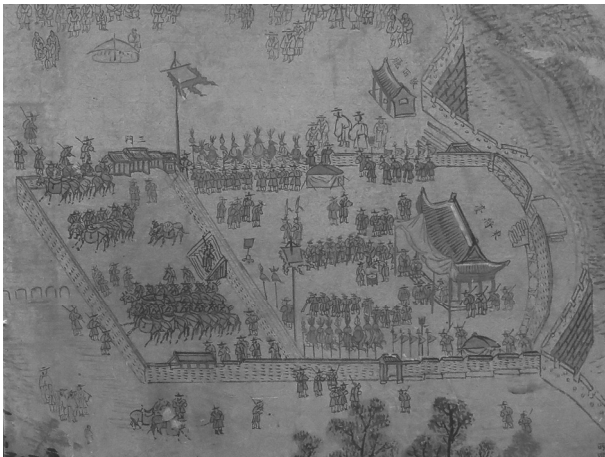
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하단은 장용영 내외영 보병이 합진한 방진(方陣)이며, 그 위쪽은 금군의 학익진(鶴翼陣)과 장용위의 봉둔진(蜂屯陣) 등 마병의 포진(布陣)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화성도〉의 동장대 그림에도 건물 앞쪽 중대 좌우의 깃대에 노란색 대기치 2면이 가로로 걸려 있어 대장이 업무 중임을 암시한다(도18). 깃대 안쪽으로 관찰사의 의장인 절과 월이 진열되어 있고 왕을 상징하는 용대기가 없어 대장은 곧 경기감사가 겸하던 유수임을 알 수 있다.<sup>56)</sup> 1836-1837년 수원부유수를 지낸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화영일록(華營日錄)』에는 유수가 관장한 마병·보병에 대한 습조와 조련 등 군사업무들이 기술되어 있다. 동장대에서는 춘등(春等) 활쏘기 시험장을 개설하여 인재를 뽑아 상을 발급하기도 하였다.<sup>57)</sup> 즉, 동장대의 군사훈련은 유수가 설행한 습조 및 시취 장면과 관련이 있으며 그 도상은 정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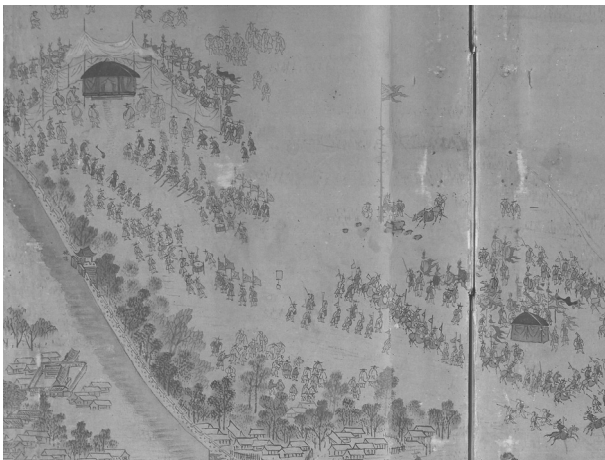
55) 파리 국립도서관(BNF) 소장 『덩니의궤 권지삼십구 화성성역도본』 '각항 일시'; 『일성록』 1796년 1월 22일(己巳).

56) 수원부에는 정2품 유수 2인이 있었고 그중 1인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하였다.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참조.

57) 서유구, 『華營日錄』(경기도박물관, 2004), 110쪽.



도18-동장대의 군사훈련, 〈화성도〉(12첩 병풍) 부분



도19-장안문 밖에서의 군사훈련, 〈화성도〉(12첩 병풍) 부분

〈동장티시열도〉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안문 밖에서의 군사훈련은 맨 위쪽 장막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장막 위의 흰 차일과 주위를 두른 흰 포막이 눈길을 끈다(도19). 장막은 바닥보다 높은 단 위에 3칸으로 묘사되고 휘장이 쳐져 있어 왕의 장전(帳殿)으로 보이며 앞쪽에 내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공수자세로 서 있는 것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장전 앞쪽으로는 계단이 희미하게 묘사되어 있고 북과 과녁이 놓여 있어 시사(試射) 장면을 시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쪽 장막 주위에서도

대기치를 중심으로 마병의 조련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즉, 이 군사훈련 장면은 화성 행행(行幸) 시 왕의 입어 아래 군사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다.

하지만 정조 사후 화성은 국왕의 능원 전배 시 머무는 행궁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유주(幼主) 순조는 15세 되던 1804년부터, 헌종은 17세 되던 1843년부터 화성에 행행하기 시작하였다. 어린 나이에 장거리 행행이 쉽지 않았고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화성 행행 횟수는 순조 9회, 헌종 2회, 철종 3회에 그쳤다.<sup>58)</sup> 또한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정조의 건릉(健陵)과 장헌세자의 현릉원(顯陵園) 전배 및 화령전(華寧殿) 작헌례를 하고 환궁하는 경우가 많았다.<sup>59)</sup> 그러므로 장안문 북쪽에 교장(敎場)을 열어 왕이 직접 군사들을 조련하거나 시위를 한 예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sup>60)</sup> 하지만 헌종은 1843년 3월의 행행 시 동장대에서 야조를 행하고 6월의 차비대령화원 녹취재 시험에서 ‘동장대야조도(東將臺夜操圖)’를 그리게 한 바 있다.<sup>61)</sup>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교장열무도(敎場閱武圖)’, ‘행행전일신시취군도(幸行前日申時聚軍圖)’, ‘용양봉저정군병배립(龍驤鳳翥亭軍兵排立)’ 등 군사훈련과 관련한 내용을 녹취재 시험 문제로 다수 내었다.<sup>62)</sup>

그러므로 <화성도>는 이러한 19세기 전반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화성성역의궤』의 <화성전도>의 구도를 중점적으로 차용하고 있으므로 정조가 화성 축조의 대역사를 기념하여 제작한 ‘화성전도(華城全圖)’ 대병(大屏)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3)</sup> 당시의 대병 역시 『화성성역의궤』 <화성전도>를 연폭 병풍으로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앞서 본 동장대 시열이나 교장 열무 장면 등이 시각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러한 ‘화성전도’의 제작 전통 아래 관찰사의

58) 이왕무, 앞의 논문, 112쪽, 114쪽, 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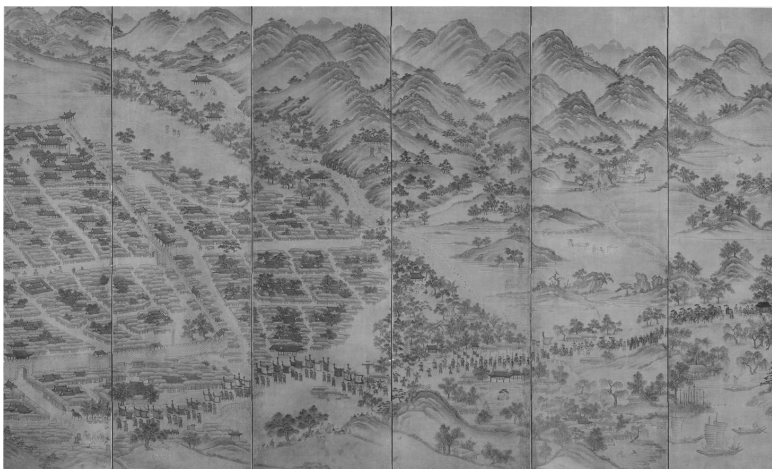
59) 순조-철종 대에 이루어진 화성 행행 14회 중 3박4일 일정은 1828년 2월 22-25일, 1843년 3월 15-18일, 1846년 2월 20-23일 3회였다.

60) 동장대에서의 夜操는 헌종이 2회(1843년 3월 15일, 1846년 2월 20일), 철종이 1회(1860년 3월 16일) 행한 예가 있다.

61) 『내각일력』 1843년 6월 14일.

62)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하(돌베개, 2001), 74-75쪽.

63) ‘華城全圖’ 대병 11좌를 기념계병으로 제작하여 총리대신·당상·낭청·都廳 3인 등 6인에게 하사하고 유수부에도 絹本과 紙本 대병 각 1좌씩을 배설하도록 한 바 있다. 박정혜, 『「華城城役儀軌」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93(2002), 439쪽.



도20-작자 미상, 〈해주도〉(6첩 병풍), 견본채색, 142,6×230cm,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행렬과 군사훈련 장면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교장 열무 모습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둘째, 대기치 행렬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유형이다.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 〈해주도〉(6첩 병풍)와 서울대학교박물관과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된 〈평양도〉(10첩 병풍) 2점,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 〈강화도행렬도〉(12첩 병풍)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주도〉는 평행사선 구도로 부감된 방형 해주읍성의 동쪽 절반 부분이 5-6폭 중앙에 위치해 있어 서쪽 부분을 포함한 좌반부가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도20). 그림에서는 읍성 북쪽 우이산에 자리한 정각사(正覺寺)와 우이사(牛耳祠)를 화면 상단에 배치하고 우이산에서 발원하여 동쪽 한천포구(漢川浦口)로 흘러드는 광석천(廣石川) 계류를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포치했으며, 위쪽으로는 중첩된 연봉과 주변 산야를, 아래쪽으로는 읍성과 민가를 배치하였다. 우이산에서 발원하여 시가를 우회하여 해주만으로 흘러드는 광석천은 천변에 탁열정(濯熱亭)·지환정(志歡亭)·사미정(四美亭) 등 승경처가 있어 해주팔경의 첫째 ‘광석탁족(廣石濯足)’으로 꼽히던 명소였다.<sup>64)</sup> 그림에서는 광천 주변에서 활을 쏘거나 탁족, 혹은 빨래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해운정(海雲亭)에서 조어하는 장면이 묘사되

64) 한국인문과학원 편, 『朝鮮時代 私撰邑誌 33: 황해도 3』(1990), 9쪽, 22쪽. “廣石濯足 栢林觀德 南山望海 東亭(海雲亭)釣魚 芙蓉賞蓮 瀛海甌月 南江泛舟 泣川送客.”



도21-대기치 행렬, 〈해주도〉(6첩 병풍) 부분

어 있다. 해운정도 ‘동정조어(東亭釣魚)’로 알려진 동정으로, 신구 관찰사가 관부를 인수인계하던 곳이었는데<sup>65)</sup> 지나가는 관찰사의 행렬을 아랑곳 않고 낚시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투적인 느낌을 준다.

관찰사 행렬의 선두에 인신과 병부를 실은 말이 해주성 남문인 순명문 앞 해운교(海雲橋)를 건너고 있고 바로 뒤에 대기치 40면이 정연한 대오를 지어 따르고 있다(도21). 대기치의 내용과 순서는 앞서 본 〈안룡신영도〉에 묘사된 것과 동일하다. 이어 일산과 고취대 14인이 군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영기 6면, 곤장수 4인, 주장수 6인과 나장 2인이 서고 관이수·영전수와 인기에 이어 손에 수기(手旗)를 들고 융복을 입은 군관 2인, 세악수 6인, 군복에 수기를 든 군관 2인, 통인과 사령, 말에 탄 기녀 6인에 이어 사인교가 나아가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15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이 행렬에는 관찰사의 의장인 절과 월, 유서와 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행렬이 교귀처인 해운정 동쪽 너머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순력과 같은 일상 행렬을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66)</sup> 관찰사의 가마는 긴 가로채 사이에 2인씩 앞뒤로 서서 짧은 가마채로 가마의 뿔대를 걸어 낮게 매도록 하여 안정성을 갖춘 사인교로 일상 행차에 타던 이동수단으로 여겨지는데, 다음에 살펴볼 〈평양도〉에서도 같은 형식의 사인교가 확인된다. 해주성 내에 ‘사창(社倉)’이 묘사되어 있어 1867년 이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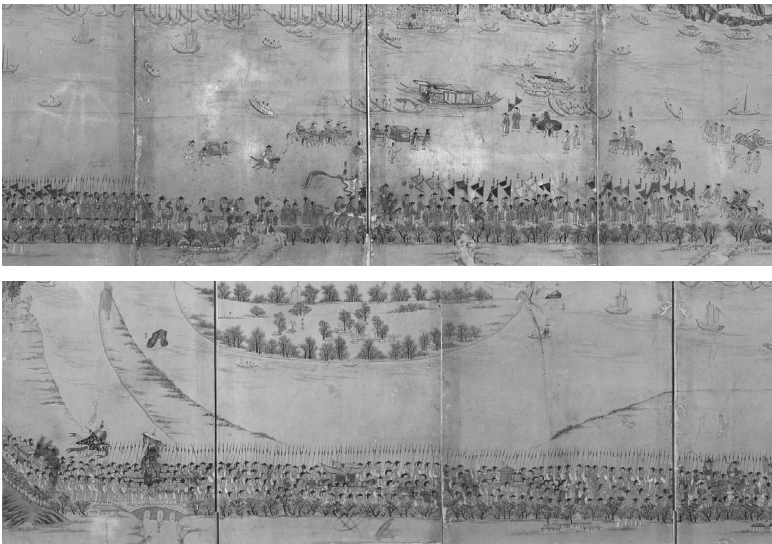
65) 위의 책, 40쪽.

66) 박정애, 앞의 논문, 292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67)</sup>

그 외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병풍에도 실경도를 배경으로 한 동래부사의 행렬에 대기치가 등장한다. 이 그림의 대기치는 청도기 1쌍, 금고기 1쌍, 독과 형명기(용기) 정도이지만 고취대와 세악수, 순령수와 영기수 등 각종 표하군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동래부사의 쌍마교 행렬이 묘사되어 있다.<sup>68)</sup> 장대한 화면의 실경도에 대기치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19세기 전반 이후의 작품으로 보인다.

한편, 〈평양도〉(10첩 병풍)는 대기치와 다수의 군사가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 병풍에는 영제교(永濟橋)에서 대동문 건너편 나루에 이르는 감사의 행렬이 4-10폭 하단에 걸쳐 장대하게 묘사되어 있다(도22).<sup>69)</sup> 등장하는 인원은 410여 명에 이른다. 행렬은 영기 2면과 병부와 인신을 실은 인마(印馬), 절과 월, 교서와 유서에 이어 38면의 대기치, 관이와



도22-평양감사 부임 행렬, 〈평양도〉(10첩 병풍) 부분, 지본채색, 전체 131,0×390,0cm, 서울대학교박물관

67) 1872년 지방지도 〈황해도 해주지도〉에 의하면, 해주의 社倉은 성 밖에 산재하고 성내의 ‘社倉’은 司倉의 오기로 보이는데, 이러한 오기는 社倉이 세워진 1867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68) 이 병풍에 대해서는 신남민, 앞의 논문 참조.

69) 평양도(기성도) 병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애,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148-189쪽 참조.



도23-순영 중군, 〈평양도〉(10첩 병풍)  
중 5폭 부분

신전, 교련관, 독과 용기, ‘관서제군 사명(關西諸軍司命)’이라 쓴 사명기, 세악수와 고취대, 영기와 군관 및 장창(長鎗)을 든 군사들, 풍악수, 관기와 동기, 사당, 쌍마교, 평교자를 타고 일산을 받친 감사, 좌독기, 감사 가족이 탄 사인교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는 청색 철릭에 주립(朱笠)을 갖춘 융복 차림이다. 감사 앞에 배치된 쌍마교는 붉은색 주립과 청색 의장을 가설한 것이 이채로운데, 한양을 벗어난 행로에서 타다가 오리정에서 본격적인 위의를 갖추어 평교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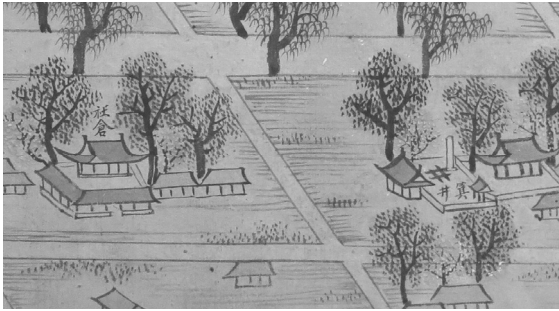
바뀌 타면서 비워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행렬은 인신과 병부, 절과 월, 교서와 유서, 대기치와 조상의 사당을 모시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대기치류와 사명기, 좌독기, 장창을 든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무위를 과시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

무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는 순영(巡營) 중군이 대동관 밖에서 좌기(坐起)한 모습을 시각화한 데서도 확인된다(도23). 순영(감영)에 소속된 중군은 관찰사의 군사보좌관으로 병조에서 임명한 정3품 당상관이었다.<sup>70)</sup> 영조 연간에 함경도와 평안도에 먼저 설치되고 나머지 도에는 정조 연간 『대전통편』(1785)이 편찬되기 전에 모두 설치되었다.<sup>71)</sup> 감영의 중군은 관찰사를 대신하여 취재나 시사, 활쏘기 등 군사관계 업무를 주관하였는데, 이 그림에서는 갑주를 갖추어 입은 모습을 통하여 군사업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대대적인 무위 과시를 어떠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림 9폭 기궁(箕宮)한 블록 원편에 위치한 ‘사창(社倉)’을 통해 그림의 제작 시기를 기늬해볼 필요가 있다(도24). 사창은 각 지방 군현의 춘락에 설치되어 향촌 자체의 민간빈민구호기관 역할을 하던 곡물대여기관이었다.<sup>72)</sup> 재정 보충과 농민

70) 『大典會通』 卷4 兵典 外官職.

71) 이수건, 앞의 책, 225쪽.



도24-사창(社倉), 〈평양도〉(10첩 병풍) 중 9쪽 부분

진휼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던 환곡제도가 재정 보충수단으로 변질되어 극심한 폐단을 낳고 임술농민봉기의 주요 요인이 되자<sup>73)</sup>, 그에 대한 보완 겸 국가 재정 확보책으로 대원군 집권기(1863-1873)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사창제도였다.<sup>74)</sup> 사창은 1866-1867년에 황해도와 경기도, 강원도와 삼남 지방에서 먼저 시행되고 평안도 지역에는 1872년에 시행되었다.<sup>75)</sup> 이렇듯 전국 규모로 제도적으로 시행된 사창은 〈1872년 지방지도〉에서 일제히 시각화된다. 그러므로 그림 속 사창은 이러한 시대 배경 아래 시각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하면, 무위를 대대적으로 드러낸 것 또한 대원군 집권기의 일련의 군사제도 정비와 연관 지어 해석될 수 있다. 대원군은 1866년 병인양요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서면서 전담 부서로 삼군부(三軍府)를 발족시켰다.<sup>76)</sup> 1868년에 의정부와 같은 정1품 아문으로 복설된 삼군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군비 확충과 군사훈련이 이루어졌고, 1872년 신미양요 이후에는 전국의 병영과 부목군현에 1만 8,000명의 포군(砲軍)을 설치해 무비가 강화되었다.<sup>77)</sup> 대원군 집권기에 무반 전문 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군사력 확충은

72) 문용식, 「17·18세기 사창(社倉)을 통한 지방관의 재정 보충 사례」, 『역사와 현실』 72(2009), 69-101쪽. 평양에서도 1730년에 인현사창(仁賢社倉)이 설립된 기록(이철성 역주, 『여지도서 18: 평안도 1』, 디자인하름, 2009, 122쪽)이 있으나 19세기 중엽의 『興圖備志』에서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다가 1861-1866년경의 『大東地志』에서 다시 확인된다.

73) 문용식, 「19세기 전반 환곡 진휼기능의 변화과정」, 『역사와 경계』 19(1990), 117-118쪽.

74) 송찬섭, 『朝鮮後期 還穀制改革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09-272쪽.

75) 위의 책, 216-2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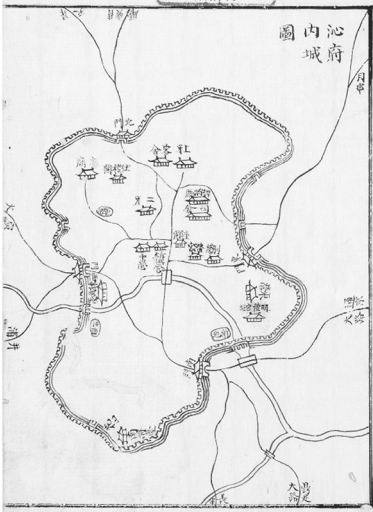
76) 최병욱, 「高宗代의 三軍府 研究」, 『군사』 19(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9), 50쪽.

77) 김세은, 「大院君執權期 軍事制度의 整備」, 『한국사론』 23(1990), 313-314쪽.

무신들의 지위를 신장시키고 무비를 숭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낳았다.<sup>78)</sup>

410명에 이르는 대행렬에 등장하는 군사들은 모두 붉은색 주락(朱絡)이 강조된 장창을 들고 있어 병인양요를 계기로 일신한 지방군의 무비 상황을 시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의 선상(船上) 행렬이 등장하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기성도병(箕城圖屏)>에도 대기치와 용기, 사명기, 좌독기와 주락이 강조된 장창군들이 등장하고 사창이 표기되어 있어 비슷한 시기 수군(水軍) 훈련 모습을 시각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위를 강조하는 시대 분위기는 <대한제국동가도>같이 열무와 관련한 왕의 행렬도가 이 시기에 제작된 데서도 확인된다.<sup>79)</sup>

<강화도행렬도>는 1849년 후사 없이 승하한 헌종의 후계로 당시 강화도에 살던 이원범(李元範, 철종)을 한양으로 모셔오는 봉영 행렬로 알려져 있으나 재고의 여지가 많다.<sup>80)</sup> 세부 그림이 공개된 바가 없어 각 건물에 부기된 명칭을 자세히 상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지방지도와 지방지의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행렬의 성격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묘와 사직, 유수부의 객사와 상아(上牙, 上衙)가 크게 묘사되



도25- <심부내성도(沁府內城圖)>, 『강화부지(江華府志)』, 1872

어 있고 그 위로 사직각, 교궁(敎宮, 향교)만 있을 뿐 행궁과 외규장각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 내성의 주요 관서의 배치는 병인양요로 행궁과 외규장각이 불탄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여 1872년에 편찬된 『강화부지(江華府志)』의 <심부내성도(沁府內城圖)>와 부합한다(도25).

또한 서문 안쪽에 크게 묘사된 연무당(鍊武堂)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원래 장대(將臺)가 있던 진무영(鎭撫營) 조련장으로, 군병들이 모여 기고진퇴(旗

78) 위의 논문, 315쪽.

79) 고종 연간 왕의 행렬도에 대해서는 제송희, 앞의 논문(2013), 187-197쪽 참조.

80) 이 그림은 김울림, 「경기도의 옛지도와 기록화」, 『옛 그림 속의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05), 204-205쪽에 수록되었고 현재 강화역사박물관에 모사본이 전시되어 있는데 모두 철종봉영 행렬로 소개하고 있다.



도26-행렬 장면, <강화도행렬도>(12첩 병풍) 중 3-8쪽 부분, 견본채색, 전체  
149×434cm,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鼓進退) 절차를 훈련하고 시사 장소로 쓰던 곳이었다.<sup>81)</sup> 1870년에 강화유수 이용희(李容熙)가 이곳에 연무당을 창건하였고, 후에 김윤식(金允植)이 유수로 있을 때 동소문 밖으로 이진하여 동교장(東郊場)이라 하였다.<sup>82)</sup> 즉, 연무당은 1870년에 창건된 건물로 김윤식이 1882년 강화유수로 있을 때 동문 밖으로 이진된 것으로 추정된다.<sup>83)</sup> 그러므로 그림 속 연무당은 1870-1882년의 상황을 시사하며, <심부내성도>에서도 비교적 큰 비중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곳은 1876년 병자수호조규가 맺어진 역사의 현장이었다.

그림에서는 12쪽으로 펼쳐진 강화도의 전경을 배경으로 갑곶나루에서부터 외성 문인 진해문(鎭海門)을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내성 남문을 통과하여 부내에 이르는 긴 행렬이 묘사되어 있다(도26). 행렬 선두의 깃발이 중영과 진무영(閔武堂) 부근에 이르러 있는 것이 확인된다.<sup>84)</sup> <심부내성도>에 묘사된 도로를 참조하면 중영과 진무영을 지나

81) 『江華府志』(1872); 한국인문과학원 편, 『朝鮮時代 私撰邑誌 12: 경기도 12』(1989), 69-70쪽.

82) 박현용 편, 『續修增補 江都誌』 上(1932); 한국인문과학원 편, 위의 책, 420-421쪽.

83) 김윤식은 1882년, 1884년, 1894년 세 번에 걸쳐 강화유수에 제수받았다. 그는 1882년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청에 파견되었다가 위안스카이(袁世凱)의 도움으로 500명을 선 발하여 강화에 진무영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연무당을 동소문 밖으로 이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84) 진무영은 1866년 병인양요 이후 정2품 아문으로 승격되어 국방상의 요지로 부각되었

왼쪽으로 꺾으면 연무당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직진하면 객사로 가게 된다. 행렬의 순서를 대강 살펴보면, 선두의 대기치와 군사들, 주장수와 영기수 등 표하군이 민가 사이로 드문드문 나아가는 모습에 이어 20여 명의 대기치, 고취대, 순령수를 앞세운 군관이 서고 이어 가마들이 나아가고 있다. 가마는 붉은색 쌍마교 1좌, 견여 1좌, 밤색 쌍마교 1좌와 견여 3좌 순으로 되어 있다. 가마들 주위에는 수행 관원과 군사들이 밀집 시위를 하고 있어 행렬의 중심임을 암시한다. 가마 행렬 뒤쪽으로는 다시 기치류와 군관, 대기치류, 고취대, 사명기와 관이수·신전수, 창검, 절·월, 유서·교서를 멘 군사, 군관 등이 서고 4쪽 행렬 중간에 청색 융복을 입고 평교자에 탄 이가 따르고 있으며 그 뒤를 관원과 군사들이 시위하며 후미를 장식하고 있다. 맨 뒤의 행렬은 막 진해문을 통과하는 중이다. 행렬은 크게 대기치류와 고취대를 각각 세운 앞뒤 두 행렬로 나뉘는데 앞부분의 쌍마교 2좌는 종2품 이상의 사신들이 탄 것으로 보이며 견여 4좌는 사신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물품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뒷부분은 앞의 사신 행차를 배행하는 강화유수나 경기감사의 행렬로 추정된다.<sup>85)</sup> 뒷부분 행렬 고취대 뒤의 절과 월, 유서와 교서를 멘 군사들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강화 내성의 관서 배치와 연무당의 존재, 행렬 구성으로 볼 때 위의 행렬은 1870-1882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시 사신 행렬을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종은 1875년 윤요호 사건 이후 일본과의 교섭을 위한 접견대관(接見大官)으로 판중추부사 신헌(申櫺)과 부관으로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尹滋承)을 임명하였다.<sup>86)</sup> 신헌 일행은 1876년 1월 7일 강화부에 도착하여 한 달가량 부내 이아(貳衙) 건물에 머물며 일본의 특명전권변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부대신(副大臣)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과 3차에 걸친 회담과 10여 차례의 막후교섭 끝에 2월 3일 연무당에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sup>87)</sup> 회담장이던 연무당은 그림에서 부내 관서들 중 가장

으나 1874년 고종 친정과 함께 舊制로 환원되었다. 최병욱, 앞의 논문, 33-34쪽, 84-86쪽.

85) 대관의 행차에 감사가 배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당시 신헌은 감사의 배행을 사절하였으므로 강화유수가 배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신헌 지음, 김종학 옮김,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푸른역사, 2010), 49쪽.

86) 『고종실록』 13년 1월 5일(丁酉).

87) 신헌 지음, 김종학 옮김, 앞의 책, 42-45쪽의 '강화도조약 체결과정의 주요사건 일지' 참조.

큰 비중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깃대에 형명기를 옆으로 내걸고 건물 주변에 관원과 군사들이 도열해 있어 마치 회담을 준비 중인 것처럼 보인다.

그림의 전체 구도는 전통적인 부감법으로 강화섬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조망하면서도 원근법이 잘 적용되어 있으며 엷은 청색으로 선염한 바다와



도27-〈강화지도(江華地圖)〉(古軸 4709-57)

부분, 1875-1894년경, 지본담채, 전체 147×102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색으로 또렷이 설채한 내외의 성곽, 청색과 황색 위주로 전체 경관을 묘사한 점이 돋보인다. 특히 바다의 청색 선염 처리나 청색과 황색 중심의 채색 구사방식은 1870년대 회화식 지도인 〈강화지도(江華地圖)〉의 묘사법과 상통한다(도27). 행렬의 세부와 수지법, 성곽, 가옥, 행렬을 구경하는 관광민인,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림에 부기된 주기(註記) 등을 포함한 그림 전체에 대한 분석은 차후 세부 그림이 공개되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IV. 맺음말

전근대 시기의 관원은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의장(儀仗)과 탈것(이동 수단), 수행원의 구성과 숫자를 통해 위의를 드러내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종1품 이상관과 기로소의 당상관은 평교자를, 2품 이상관은 초헌을, 관찰사와 종2품 이상관은 성 밖에서 쌍마교를 탈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안릉과 호상, 노자의 숫자, 말안장의 장식을 통해 행렬 주인공의 위의를 드러내었다. 다만 국왕의 명을 받고 지방이나 외국에 파견되는 관찰사와 사신에게만 의장인 절과 월을 특별히 허용하여 위의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들의 경우 절·월 외에 군대의 형명, 교서·유서, 관인·병부, 군영 악대, 쌍마교가 주요 구성요소로 편성되었음을 관원 기록과 일본에서 제작한 통신사 행렬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관원의 행렬은 16-17세기 외국에 파견된 사신 관련 기록화나 영리들의

계축에서 일부 시각화되지만 행렬의 구성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어 위의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특별히 읽어내기 어렵다. 관원 행렬은 18세기 후반 정조 연간부터 활발하게 시각화된다. 이는 정조의 왕권 강화와 국왕 행차를 시각화한 각종 기록화 제작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관원의 행렬을 시각화한 이미지들이 평생도 병풍의 도상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특히 지방관인 개성유수의 행렬은 의장인 절·월과 함께, 국왕이 내린 교서와 유서를 선명한 붉은색 통에 담아 시각화하고 있어 왕권의 존재를 과시하고자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 외 행렬에 포함된 각종 기치류와 고취대 및 표하군들은 간략하게 시각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작례는 많지 않지만 관원의 독립 행렬도에서는 법전에 정하지 않은 최신식 이동수단인 좌거를 사대부들이 승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평안도 안주목사의 행렬을 그린 〈안릉신영도〉는 18세기 후반 사가 기록화에서 40면의 대기치와 군영 악대가 구체적으로 시각화된 예로서 의의가 크다. 대기치는 정조의 거동 행렬과 각종 왕실 기록화에서도 주요하게 시각화된 것으로 정조의 군권 강화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각자료이다.

19세기 관원 행렬은 감영이나 유수영 등 행정 및 군사 요충지를 공간 배경으로 한 연폭 실경도 병풍에 대기치를 배치한 지방관의 군사 행렬을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 관원의 행렬은 대기치의 시각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유형은 대기치가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묘사된 경우로, 시기적으로는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이다. 말을 탄 관찰사의 행렬이 등장하는 〈경기감영도〉는 사실적인 감사 행렬이라기보다는 풍속화 차원에서 정조 연간의 관원 행렬 이미지와 기치류 묘사방식을 수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화성도〉는 정2품 수원유수의 행렬을 시각화하면서 정조의 화성 관련 각종 이미지를 대형 병풍에 차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유형은 대기치 행렬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로, 그림에서 '사창(社倉)'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제작 시기를 대원군 집권기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해주도〉의 행렬은 관찰사의 의장인 절과 월, 유서와 교서가 확인되지 않아 1867년 이후 황해도 관찰사의 일상 행렬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양도〉의 행렬은 인신과 병부, 절과 월, 교서와 유서, 대기치와 조상의 사당을 모시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특히 〈평양도〉에서는 대기치류와 사명기, 좌독기, 장창을 든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무위를 과시하려 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는 이 시기 일련의 군사제도 정비와 무신들의 지위 신장 및 무비를 숭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데, 동시기에 제작된 왕의 행렬도들과 같은 시대적 소산임이 확인된다. 한편 〈강화도행렬도〉는 내성의 주요 관서에 행궁과 외규장각이 없고 서문 안쪽에 크게 묘사된 연무당의 존재에 주목하여 1870-1882년의 상황을 반영하며, 1876년 병자수호조규가 맺어진 역사의 현장으로서 강화도조약 체결을 위해 파견된 신헌 행렬을 묘사한 그림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참 고 문 헌

### 1. 원전류

- 『江華府志』(1872).
-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儀序例』, 『大典會通』, 『續大典』, 『春官通考』, 『고종실록』, 『내각일력』, 『선조실록』, 『성종실록』, 『승정원일기』, 『영조실록』, 『일성록』.
- 김정호, 『大東地志』. 영인, 아세아문화사, 1976.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한어대사전』 10. 2007.
- 『덩니의케 권지삼십구 화성성역도본』(프랑스 국립도서관, <http://gallica.bnf.fr/ark:/12148/btv1b10516093g>).
- 朴綺秀, 『華城誌』 권2.
- 박헌용 편, 『續修增補 江都誌』 上. 1932.
- 『書經』 舜典.
- 『續兵將圖說』.
- 윤두수, 『梧陰遺稿』 卷之一.
- 정약용, 『經世遺表』.
- 한국인문과학원 편, 『朝鮮時代 私撰邑誌 12. 경기도 12』, 1989.
- \_\_\_\_\_, 『朝鮮時代 私撰邑誌 33: 황해도 3』. 1990.
- 외규장각의케(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케 종합 DB).
- 〈1872년 지방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사이트).
- 최성환 · 김정호, 『輿圖備志』 19. 1853-1856(국립중앙도서관 원문자료 사이트).

### 2. 도록

- 『경기문화재대관』. 경기도, 1998.
- 『기록화 · 인물화』.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2016.
- 『단원 김홍도』. 중앙일보사, 1985.
-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삼성문화재단, 1999.
-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II. 국립중앙박물관, 2012.
- 『조선시대 지도와 회화』. 국립중앙박물관, 2013.
-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2002.

### 3. 단행본

-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하. 돌베개, 2001.
-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케 국역증보판』 상. 2005.
- 박정애,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서유구, 『華營日錄』. 경기도박물관, 2004.

서유문(徐有聞),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 1(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송찬섭, 『朝鮮後期 還穀制改革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신현 지음, 김종학 옮김,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푸른역사, 2010.

『역주 병학지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오주석, 『단원 김홍도』. 열화당, 1998.

유희춘, 『미암일기(眉巖日記草)』 3.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4.

이수건,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이숙희, 『조선후기 군영악대』. 태학사, 2007.

이존희,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연구』. 일지사, 1990.

이철성 역주, 『여지도서 18: 평안도 1』. 디자인하름, 2009.

정원용 지음, 허경진·구지현·전송열 옮김, 『(국역)경산일록』 2. 보고사, 2009.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洪翼漢 지음, 정지상 옮김, 『朝天航海錄』 卷1(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화성시,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읍지』. 2006.

#### 4. 논문

김선정, 「조선시대 〈경기감영도〉 고찰」. 『옛 그림 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05, 223-274쪽.

김세은, 「大院君執權期 軍事制度의 整備」. 『한국사론』 23, 1990, 275-325쪽.

김울림, 「경기도의 옛지도와 기록화」. 『옛 그림 속의 경기도』, 204-205쪽.

김지영, 『조선 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김혁, 「조선후기 守令의 赴任儀禮-『頤齋亂藁』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2, 2002, 153-180쪽.

문용식, 「19세기 전반 환국 진흥기능의 변화과정」. 『역사와 경계』 19, 1990, 79-118쪽.

\_\_\_\_\_, 「17·18세기 사창(社倉)을 통한 지방관의 재정 보충 사례」. 『역사와 현실』 72, 2009, 69-101쪽.

박정애, 「19세기 連幅 實景圖 屏風の 유행과 作畵 경향」. 『기록화·인물화』, 동아대 학교석당박물관, 2016, 276-295쪽.

박정혜, 「『華城城役儀軌』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93, 2002, 413-471쪽.

신남민, 「東萊府使接倭使圖屏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여상진, 「18世紀 忠淸監司의 監營處 및 道內 邑治施設 利用」.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1, 2008, 143-153쪽.

- 윤민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윤진영, 「조선시대 지방관의 기록화」, 『영남학』 16, 2009, 77-124쪽.
- 이대화, 「朝鮮後期 守令赴任行列에 대한 一考-〈安陵新迎圖〉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193-223쪽.
- 李明熙, 「平安監司到任行事圖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陵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준희, 「8도체제와 경기관찰사」,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152-164쪽.
- 정은주, 「뱃길로 간 중국, 감자항해조천도」, 『문헌과해석』 26, 2004, 124-160쪽.
- 제송희, 『조선시대 儀禮 班次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조선왕실의 가마[輦輿] 연구」, 『한국문화』 70, 2015, 259-298쪽.
- 차미애, 「江戸時代 通信使登城行列圖」, 『미술사연구』 20, 2006, 273-310쪽.
- 최병옥, 「高宗代の 三軍府 研究」, 『군사』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9, 7-99쪽.
- 최성희, 「19세기 평생도 연구」, 『미술사학』 16, 2002, 79-110쪽.
- 최은정, 「甲子(1624年)航海朝天圖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홍선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1711년 조선통신사행렬도」, (사)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국사편찬위원회, 『朝鮮時代 通信使 行列』, 2005, 8-11쪽.
- 李元植, 「通信使行列繪圖」, 『朝鮮通信使の研究』, 京都: 思文閣出版, 1997, 635-640쪽.
- 田代和生, 「朝鮮通信使行列繪卷の研究」, 『朝鮮學報』 137, 1990, 1-46쪽.

## 국 문 요 약

전근대 시기의 행렬은 행렬 주인공의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의장(儀仗)과 탈것(이동수단), 수행원의 구성과 숫자를 통해 위의(威儀)를 드러내었다. 조선시대 관원들에게는 품계에 따라 탈것과 수행원의 숫자가 『경국대전』에 정해져 있었다. 의장은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이나 외국에 파견되는 신하에게만 절(節)과 월(鉞)이 특별히 주어졌다. 조선후기 지방관들은 절·월 외에 군대의 형명(形名), 국왕의 명령서인 교서(敎書)·유서(諭書), 관인(官印)·병부(兵符) 등을 앞세우고 쌍마교(雙馬轎)를 타고 행차함으로써 위엄을 드러내었다.

관원의 행렬은 18세기 후반 정조 연간부터 활발하게 시각화되었다. 이 시기 왕권 강화와 국왕 행차를 시각화한 왕실 기록화의 활발한 제작 분위기 속에 다양한 관원의 행렬을 시각화한 이미지들이 평생도 병풍으로 정형화되었다. 특히 지방관인 개성유수의 행렬은 의장인 절·월과 함께, 교서와 유서를 선명한 붉은색 통에 담아 시각화하여 지방관 행렬도의 전형이 되었다. 또한 40개의 대기치와 군영의 악대를 앞세운 관원의 행차 모습을 독립된 행렬도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19세기 관원의 행렬은 감영이나 유수영 등 행정 및 군사 요충지를 그린 연폭 실경도 병풍에 대기치를 앞세운 지방관의 군사 행렬을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원군 집권기에 군사제도 정비와 무신들의 지위 신장 및 무비(武備)를 숭상하는 사회적 분위기 아래 일련의 〈평양도〉 병풍 속에는 410여 명으로 이루어진 관찰사의 대행렬이 시각화되었다. 이렇듯 관원 행렬은 왕권이 강화된 정조 대와 군권이 강화된 고종 대의 시대 분위기 속에 그와 관련한 상징물들을 강조하여 시각화한 특징을 보인다.

**투고일** 2016. 6. 21.

**심사일** 2016. 7. 29.

**게재 확정일** 2016. 8. 22.

**주제어(keyword)** 관원 행렬(official procession), 절(*jeol*)과 월(*wol*), 형명(military banners and drums), 쌍마교(*ssangmagyo*, sedan chair borne by two horses, one in front and one behind), 대기치(*daegichi*, large military command flags), 평생도 병풍(*pyeongsaengdo* byeongpung), 실경도(real-scenery landscape paintings), 평양도(*Pyeongyang-do*), 관찰사(*gwanchalsa*, provincial governor), 유수(*yusu*, head of a provincial military bureau charged with defending the Joseon capital), 정조(King Jeongjo), 고종(King Gojong)



### Characteristics of Late Joseon-period Visual Representations of Official Processions

Jae, Song-hee

In traditional times, the importance of a procession was demonstrated by the use of ceremonial weapons and modes of transport symbolizing the status and identity of the central figure, as well as the composition and size of the accompanying retinue. In the Joseon period, modes of transport and size of retinue were defined by law, according to the official rank of the central figure. Among ceremonial weapons used, *jeol*(節) and *wol*(鉞) were given only to officials sent to the provinces or abroad on the orders of the king, as symbols of the royal authority delegated to the official. In addition to *jeol* and *wol*, Joseon officials demonstrated their status by parading with military banners and drums, *gyoseo*(教書) and *yuseo*(諭書)(two types of written order from the king), official seals and *byeongbu*(兵符; carved wooden tablets authorizing military mobilization), and riding in a *ssangmagyo*(雙馬轎; a sedan chair borne by two horses).

Many visual representations of official processions were produced from the late-18th century,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As the authority of the throne increased under Jeongjo and more royal documentary paintings recording the king's processions were produced, other officials began wanting to record their own processions in the form of paintings. During this period, images depicting the processions of various officials were conventionally produced in the form of *pyeongsaengdo* *byeongpung*, screen paintings illustrating the lives of their successful and high-ranking subjects. A procession of the head of the Songdo *yusubu*(one of the military bureaus charged with defending the capital) clearly demonstrates the presence of royal authority, featuring *jeol* and *wol*, followed by *gyoseo* and *yuseo* from the king carried in bright red tubes. Independent procession painting showing proud official processions led by 40 *daegichi*(大旗幟; large military command flags) and military bands was also produced.

19th-century official processions were characterized by the depiction of military processions by provincial officials, with *daegichi* at their forefront, on large real-scenery landscape screen paintings also featuring key strategic administrative and military positions such as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nd military boundary gates. The screen painting titled *Pyeongyangdo* was produced during the rule of the Daewongun, father of King Gojong, when the mood in society was one of military reorganization, raised status for military officials and reverence for military equipment. Official procession paintings produced amid the increased royal authority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and in the heightened military power of King Gojong's rule are thus characterized by the visual emphasis placed on related symbolic items.